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 분석¹⁾

최리연(마산합포초등학교)

류현아(진주교육대학교)[†]

I. 서론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유지하여 높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이 있다.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조절학습이 학습자의 내적동기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해야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당해 보인다(장인실, 이성규, 2009). 더불어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대한 많은 연구(황구연, 2010; 장인실, 이성규, 2009; 남혜경, 2006; 김진선, 2004)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신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한편,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기조절 학습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가 여러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 학습을 지속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변인에 주목하였다.

Zimmerman(1989)은 학습에 있어서 여러 방해요소에 도 불구하고 성취를 이루는 학습자의 내부적 힘이 자기

조절학습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동기 이론에서는 행동의 원동력을 동기(motivation)로 보았지만 처음 의 의도(intention)를 유지하는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기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지(volition)가 거론되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거나, 학습의 목표를 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동기가 작용하게 되고, 처음에 목표로 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의지의 역할이다. Kuhl(1985)에 따르면 의지는 학습을 하는 데 정서적이고 실행적인 방해 요소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심리적 기제이다. 의지는 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가 바로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학습 목표 도달이나 과제 성취를 위해서 의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의지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 목표의 도달을 위해서 여러 방해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꾸준한 노력이나 끈기를 통해 이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여러 장애물에 의해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목표도달 정도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통제 능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의지통제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의도한 이후에 여러 경쟁적인 방해요소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Kuhl, Kazen-Saad, 1989)을 말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의지통제가 부모나 교사 등 어른(권

* 접수일(2017년 11월 1일), 수정일(2017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2017년 11월 21일)

* ZDM분류 : C2

* MSC2000분류 : 97C20

* 주제어 : 의지통제,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1)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위자)들의 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의지통제의 하위 전략인 동기통제와 정서통제 전략의 형성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학령기에 이르러 부모와 교사의 영향과 성패경험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 되어온 전략이다(Corno & Kanfer, 1993). 따라서, 부모나 교사가 학습자 개개인의 의지통제 능력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정택용, 2011; 박정미, 2010; 박지영, 2010)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가치관, 성격, 자기통제력, 공격성, 심리 사회적 적응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부모의 양육방식 중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 및 사회적 적응력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 전반에 걸림돌이 된다. 선행연구(정택용, 2011; 박정미, 2010; 박지영, 2010)에서는 주로 부정적 양육방식에 해당되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방식에 주목한다.

부모의 통제요인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김혜진(2014)에 따르면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가치관 및 사회, 문화적 요구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는 일상적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의 다양한 시도 및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행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욕구를 무시한 채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자녀의 독립심 표현이나 자율성 차단을 통해 자녀를 조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1996).

본 연구는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학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학습이 학습성취도 향상을 도울 수 있으며(장인실, 이성규, 2009; 김선희, 2012; 문화선, 2015),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에 있어서 여러 방해요소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이루는 학습자의 내부적 힘, 즉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Zimmerman, 1989). 학령기 아동의 의지통제는 교사나 부모 등의 권위자의 통제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학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지속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지통제

개인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즉 동기(motivation)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기대-가치 이론(성취동기 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 귀인 이론, 자기효능감 이론 등)에서는 개인의 사고가 행동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동기의 유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 수행 과정 중에서는 동기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처음의 의도를 유지하는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기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고, 이로 인해 제시된 것이 '의지(volition)'이다. 과거에는 의지와 동기를 함께 연구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구분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Kuhl(1985)과 Corno(1989)는 의지를 동기와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Heckhausen(1991)과 Kuhl(1985)은 동기과정들을 두 가지의 연속적인 심리적 상태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동기를 결정 이전 상태(predecisional)라 하였고, 의지조정을 결정 이후 상태(postdecisional)라고 구별하였다.

동기는 하고자 하는 행위, 대안들의 가치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해 주며,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종결된다. 반면, 결정 이후 상태인 의지조정 또는 자기조정은 하고자하는 하나의 결정사항을 실제 행위로 집행하는 것과 다른 대안적 행위나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행하기로 결정한 현재의 의도 혹은 목표들을 계속 집행하도록 한다(김영상, 2001).

이처럼,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 이후에 결정에 맞는 행동을 수행하는 전반에 작용하는 것이 의지이다. Ach(2006)는 의지와 동기를 구별하여 정의하였는데, 그는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나 의도가 동기에 의해 발생되지만 의지적 통제는 충동과 의도를 통제하여 계획한 행동이 실천되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한편, Kuhl & Kazen-Saad(1989)는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의도한 이후에 여러 경쟁적인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조절하

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지통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아동의 선호도를 인지적 선호도(학습), 정서적 선호도(놀이), 실행적 선호도(행동)로 분류하면서 세 개의 선호도가 일치하면 학습을 수행하는데 의지의 작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인지적 선호도와 정서적 선호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실행적 선호도가 처음의 의도(인지적 선호도)를 집행하기 위해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현재 실행 중인 행동이 의도와 불일치할 때 처음의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심리적 기제인 의지가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 초에는 정서적 선호도와 실행적 선호도가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이 곧 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동기 후반이 되면 자신의 의도를 인지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즉, 정서적 선호도와 실행적 선호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인지적 선호도를 유지하는 자기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에 대한 인지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나 정서적 선호도와 실행적 선호도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부에 대한 인지적 선호도는 친구들과 밤에 놀기 전에 숙제를 끝내겠다는 이전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것은 공부와 놀이의 다양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공부에 대한 의도를 형성하였고 놀이보다 공부가 정서적으로 더 낫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동안 인지적 선호도와 정서적 선호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로 공부에 대한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 발생했거나 지루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은 공부에 대한 인지적 선호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했거나 정서적 선호도의 영향이 인지적 선호도보다 적었다면 처음 의도하였던 의지적 선호도를 행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정연숙, 2015).

실제로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킬만한 흥미로운 학습주제를 제시해주는 것은 교사이지만,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상황(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 방해가 되는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는 것 등)을 조절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의 몫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스로 의지를 조절하는 능력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부모나 교사 등 권위자의 말과 행동 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의지통제에 미치는 부모

나 교사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 통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유아기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영남, 2014). 그러나 부모의 서투른 양육 방식이나 부정적인 가정환경은 자녀가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반응을 외부로 나타내게 한다(홍세림, 2017).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대개 애정의 정도, 통제의 정도 혹은 기대의 정도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양육 태도를 몇 개의 양상으로 유형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김정남, 1997). 그 중에서 Barber(1996)는 부모의 통제요인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하고, 각각이 아동 발달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먼저, 부모의 행동적 통제란 확고하고 일관된 규칙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부모가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을 감독,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자녀는 이런 부모의 행동적 통제를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인식한다(Beane, Barber & Crane, 2006). 김혜진(2014)에 따르면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가치관 및 사회, 문화적 요구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는 일상적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의 다양한 시도 및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과정, 자기표현, 정서와 부모와의 애착과 같은 자녀의 정서 및 심리적 발달에 개입하려는 부모의 시도로,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감정과 표현을 무시하고 억누르며, 자녀의 생각, 표현, 감정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Barber, 1996). Schaefer(1965)는 심리적 통제를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통제적인 양육방식으로 정의하고, 심리적 자율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았다.

Barber & Harmon(2002)는 심리적 통제의 특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조종하기 위해 부모가 전술적인 양육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 유발과 같은 전략을 이용해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르게 하여 자녀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여 자녀의 자아발견과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다. 셋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 거부, 무관심, 일정하지 않은 정서적 표현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이미정, 2011; 김혜진, 2014; 박선경, 2017) 대부분의 결과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여러 연구(장계림, 2010; 류현정, 2011; 이종희, 2012; 오연경, 임정하, 2017)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 게임 등에 몰입하게 되어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으며 또래관계가 부정적이고,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 몰입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4곳의 6학년 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8명의 응답 중에서 편부모 가정 학생의 응답지,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응답지, 중복응답이 있는 것 등 26부를 제외시켜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자는 371명이다. 설문분석대상자 371명 중 남학생은 186명(50.1%), 여학생은 185명(49.9%)을 차지하여 연구 대상자의 남녀 구성비는 비슷하다.

2. 검사도구

1) 수학교육에서의 의지통제

본 연구는 정연숙(2015)의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교육에서의 의지통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Kuhl(1985)과 Corno(1989)의 의지통제 이론에 근거하여 최진승 외(1998)이 개발한 의지통제 측정도구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예비검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립한 후 본 검사도구로 확정된 것이다.

본 검사도구는 의지통제를 인지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 환경통제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¹⁾ 총 48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영역별 내용과 관련 문항 수는 [표 1]과 같고 검사지는 [부록1]에 첨부한다. 본 연구에서는 4점 평점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는 4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의지 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질문은 모두 긍정문으로 표현되었다.

[표 1] 수학교육에서의 의지통제 검사지의 내용

[Table 1] The contents of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영역	내용	문항수
주의 집중	시끄럽게 떠드는 친구를 조용히 시키는 것, 소란한 교실상황과 관계없이 과제에 집중하는 것, 지나친 소음을 없애는 것 등과 같이 성취목표와 관련된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등	16
인지 통제	목표의 달성이나 과제의 완성을 촉진시켜주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험 볼 자료만을 암송하거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계획하는 것 등	

1) Kuhl(1985)은 개인의 결정이나 의도된 행동을 원활하게 실행하고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지통제로 주의집중통제, 부호화통제, 정보처리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 환경통제의 여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음. 동기에 의해 목표를 세우거나 결정을 내린 학습자가 그 실행을 위해서 이 여섯 가지 의지통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임. 이에 Corno(1989)는 이 여섯 가지 요인들에 메타동기와 메타인지 등을 반영하여 인지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 환경통제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음. 인지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는 내적 전략에 해당되며, 환경통제는 외적전략에 해당됨.

정보 처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리는 일과 관련된 것 등	
정서통제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긍정적인 마음의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는 과제를 성취하게 할 만큼의 부담감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충고한다든지 언짢은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는 것 등	12
유인적 상응	학습을 수행하며 목표를 완수하기에 동기가 너무 낮다고 느낄 때 실패하거나 성공한 후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목표를 계속 추진하도록 부추기는 것	
동기 통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것	12
자기 교시	"이번 시험에는 실수가 많았어. 다시 차근차근 일어보고 확실하게 이해해야겠어."와 같이 스스로에게 지시하는 것	
상황 통제	과제를 보다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음이나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산기나 워드 프로세서 또는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 등	
환경 통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좋은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과제의 실패에 관해 말하지 않도록 친구에게 부탁함으로써 의도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교사들로부터 특별한 도움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이나 시도들과 관련	8
과제 조력자 통제		
합계		28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문항을 제거하여 알파계수 향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표 2]와 같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의지통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912, 정서통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865, 동기통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852, 환경통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828로, 모든 문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영역별로

모든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믿을 만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검사도구의 신뢰도
[Table 2] The reliability of volition control test in mathematics learning

하위요인	Cronbach - α	문항 수
의지통제	.912	16
정서통제	.865	12
동기통제	.852	12
환경통제	.828	8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이 느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정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부모의 심리통제척도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를 사용하였다.(부록2 첨부) 이 검사는 청소년이 직접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이며, 심리적 통제 개념의 구성요인을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예정 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두고 있다.

본 검사는 총 16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요인별 내용 및 관련 문항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내용
[Table 3] The cont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하위요인	내용	문항 수
자기표현 제한	부모가 아동의 감정 및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도록 하는 것	3
감정 불인정	부모가 아동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것	3
비난	자녀의 잘못을 책잡아 힐난하는 태도	3
죄책감 유발	부모가 아동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2
예정 철회	부모가 아동에게 예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3
불안정한 감정기복	부모가 아동에게 일관되지 못한 방법으로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	2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감정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성별을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고, 실제 검사지를 투입할 때도 부, 모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사 역시 부, 모를 구분하여 따로 실시하였다.

부, 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부, 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 검사도구의 신뢰도
[Table 4] The reliabilit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est

하위요인	Cronbach - α		문항 수
	부	모	
자기표현 제한	.891	.909	3
감정불인정	.762	.787	3
비난	.628	.649	3
죄책감 유발	.667	.704	2
애정철회	.801	.833	3
불안정한 감정기복	.657	.739	2

위의 [표 4]와 같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검사도구의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자기표현 제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891, 감정불인정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762, 비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628, 죄책감 유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667, 애정철회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801, 불안정한 감정기복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657로, 모든 문항에서 .6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검사도구 역시 높은 신뢰도 계수가 나타났는데, 자기표현제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909, 감정불인정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787, 비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649, 죄책감 유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704, 애정철회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833, 불안정한 감정기복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739로, 모든 문항에서 .6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 검사도구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지 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급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설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뒤 수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학급 담임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검사 실시 유의사항과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하였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한 시간을 두진 않았지만 대체로 검사는 30~3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 내용은 오로지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솔직한 응답을 당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확인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빠뜨린 문항이 있는 경우와 편부모 가정의 경우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4) 자료의 처리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3버전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검사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수학학습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지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수학학습에서 성별에 따른 의지통제의 차이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 여 학생의 의지통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지통제

[Table 5] The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of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N	M	SD	t	p
인지 통제	남	186	2.68	.578	-2.173	.030*
	여	185	2.81	.506		
정서 통제	남	186	3.00	.591	-1.749	.081
	여	185	3.10	.495		
동기 통제	남	186	2.64	.592	-2.195	.029*
	여	185	2.76	.518		
환경 통제	남	186	2.60	.636	-3.253	.001*
	여	185	2.80	.526		
수학적 의지 통제	남	186	2.74	.518	-2.715	.007*
	여	185	2.87	.398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p<0.05)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학습에서 성별에 따른 의지통제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통제는 남학생이 2.68점, 여학생이 2.81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통제가 0.1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173$, p-value가 0.030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지통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서통제는 남학생이 3.00점, 여학생이 3.10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통제가 0.10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1.749$, p-value가 0.081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별에 따른 정서통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동기통제는 남학생이 2.64점, 여학생이 2.76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기통제가 0.12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195$, p-value가 0.029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기통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환경통제는 남학생이 2.60점, 여학생이 2.80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통제가 0.20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3.253$, p-value가 0.001으로 유의수준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환경통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나 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거나, 과제 수행 의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생각을 생성하는 것이나 과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유해한 감정 상태를 억누르거나 바꾸어서 본래의 의도를 보호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학학습에서 의지통제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2.74점, 여학생이 2.87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지통제가 0.1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175$, p-value가 0.007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지통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학습목표를 세워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주위의 여러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부모에 따른 심리적 통제의 차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부모 중 누구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의 심리적 통제 차이

[Table 6] The differences i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하위요인	N	M	SD	t	p	
자기표현 제한	부	371	1.41	.595	2.618	.009*
	모	371	1.33	.611		
감정 불인정	부	371	2.09	.799	1.074	.283
	모	371	2.05	.869		
비난	부	371	1.49	.600	-.793	.428
	모	371	1.51	.612		
죄책감 유발	부	371	2.04	.848	-.968	.334
	모	371	2.07	.930		

애정 철회	부	371	1.42	.623	-.341	.734
	모	371	1.43	.684		
불안정한 감정기복	부	371	1.49	.706	2.288	.023*
	모	371	1.41	.677		
심리적 통제	부	371	1.64	.520	.910	.364
	모	371	1.62	.563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p < 0.0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차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표현 제한은 아버지가 1.41점, 어머니가 1.33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기표현 제한이 0.0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618$, p -value가 0.009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기표현 제한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감정불안정은 아버지가 2.09점, 어머니가 2.05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감정불안정이 0.0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1.074$, p -value가 0.283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감정불안정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비난은 아버지가 1.49점, 어머니가 1.51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비난이 0.02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0.793$, p -value가 0.428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비난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죄책감 유발은 아버지가 2.04점, 어머니가 2.07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비난이 0.0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0.968$, p -value가 0.334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죄책감 유발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애정철회는 아버지가 1.42점, 어머니가 1.43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애정철회가 0.0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0.341$, p -value가 0.734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애정철회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감정기복은 아버지가 1.49점, 어머니가 1.41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0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228$, p -value가 0.023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는 아버지가 1.64점, 어머니가 1.62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심리적 통제가 0.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0.910$, p -value가 0.364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심리적 통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알아본 오연경, 임정하(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심리적 통제의 하위 요인 중에서 자기표현 제한과 불안정한 감정기복 면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아이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고 억제하거나 감정기복이 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수학학습에서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 여학생들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²⁾

1)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선형관련성 정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인지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관계수가 -0.290으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233, 비난과 애정철회는 -0.207으로 음의 선형 관련성이 나타났다. 정서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관계수가 -0.294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195, 애정철회가 -0.184, 비난이

2) 앞의 분석 결과에서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으므로,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았음.

[표 7]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상관관계

[Table 7] The correlation between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male students

	자기 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 한감정 기복	심리적 통제
인지 통제	-.290**	-.062	-.207**	-.042	-.207* *	-.233**	-.215**
정서 통제	-.294**	.009	-.168*	.019	-.184*	-.195**	-.165*
동기 통제	-.232**	.038	-.114	-.003	-.045	-.145*	-.098
환경 통제	-.248**	-.065	-.146*	-.001	-.108	-.115	-.145*
수학적 의지 통제	-.308**	-.023	-.187*	-.011	-.164*	-.207**	-.184*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0.168으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동기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계수가 -0.232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145으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환경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계수가 -0.248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비난이 -0.146으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계수가 -0.308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207, 비난이 -0.187, 애정철회가 -0.164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전체적으로 -0.184의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해석하면,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요인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남학생의 의지통제는 낮아지고, 반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낮을수록 남학생의 의지통제가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여러 하위 요인 중에서도

자기표현제한이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학생들이 부모의 여러 심리적 통제 수단 중에서도 의사표현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제한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상관관계

[Table 8] The correlation between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female students

	자기 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 한감정 기복	심리적 통제
인지 통제	-.172*	-.095	-.239**	-.002	-.194**	-.143	-.171*
정서 통제	.006	-.062	-.089	-.074	-.067	-.007	-.067
동기 통제	-.040	.045	-.045	.125	-.083	-.007	.005
환경 통제	-.208* *	-.048	-.168*	.001	-.179*	-.201**	-.154*
수학적 의지 통제	-.130	-.056	-.180*	.017	-.169*	-.109	-.125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위의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선형관련성 정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인지통제의 경우 부모의 비난의 상관계수가 -0.239으로 유의수준 .01에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애정철회는 -0.194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기표현제한은 -0.172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정서통제와 동기통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 제한과의 상관계수가 -0.208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가장 높

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146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애정철회는 .179, 비난은 .168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의 경우 부모의 비난의 상관계수가 -0.180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201 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 전체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해석하면,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내에서도 인지통제나 환경통제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그 상관관계의 정도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은 자기표현제한과 같은 요소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남학생과는 다르게 비난이나 애정 철회와 같은 부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알려진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여러 하위요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지통제를 바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부모의 바람직한 학습개입 및 양육방식의 방향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의 해석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지통제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수학학습에서 자녀의 의지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가 애정 철회, 비난, 죄의식 유발 등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제한하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동안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낮춘다는 박혜성(201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의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점검하거나 조절하는 것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의지통제를 높이고자 한다면, 부모의 양육방식 중에서도 심리적 통제에 해당되는 자기표현 제한, 비난 등과 같은 것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 요인 중 자기표현제한이 다른 하위요소보다 유의하게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 상황에서 자녀의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행동은 수학학습에서 자녀의 의지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조절하고 학습 방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가정 환경변인 중에서도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제한 및 언어적 통제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학학습에서 자녀의 의지통제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표현 제한이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계림(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자기표현 제한이 자녀의 학습물 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윤희(2016)의 연구에서는 비난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

적 통제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 및 학습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각 변인에 작용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율성 및 조절능력에 평소의 양육 방식의 다양한 요인들이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녀의 감정 및 의사표현을 존중해주는 양육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지통제 능력은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능력 및 성공적인 학습 목표 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지통제 능력이 유아기 때부터 학령기에 이르러 부모와 교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형성된다(Corno & Kanfer, 1993)고 볼 때, 의지통제 능력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인 정보를 학부모나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정보는 교사나 부모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통제적인 교육 및 양육방식을 개선하고 수학학습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지통제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선희 (2012). 자기조절학습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학업 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결정성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Kim, S.H. (2012). *The effects of the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mathematics class to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s,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김영남 (201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유아-부모 의사소통 방식이 유아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Kim, Y.N. (2014). *Effect of parents' upbringing attitude and young children-parent communication method on young children's communication ability*.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김영상 (2001). 意志調整 및 感情調整 戰略의 適用이 學業成就와 敎科 自己效能感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Kim, Y.S. (1997). *Effects of instruction of volition &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academic achievement, self-efficacy of subject-matter*.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김경남 (1997).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일치정도와 자녀 성격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J.N. (1997). *The relationship of the personality of children and the degree of agreemen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oward the educational attitude of par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김진선 (2004).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Kim, J.S. (2004). *The influences of SRL strategy training on SDL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attitude*.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김혜진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귀인성향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Kim, H.J. (2014).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ttributional style and aggression*.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남혜경 (2006).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적용한 프로젝트 학습활동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Nam, H.K. (2006). *The effects of a project learning activity using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류현정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통제가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Ryu, H.J.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trol and risk of Internet game addictio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문화선 (2015). 자기조절학습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Mun, H.S. (2015). *The impact of self-regulated learning on academic achievement in mathematic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박선경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분노사고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치료연구 15, 17-31.
- Park, S.K. (2016).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ts' anger thought and anger expression :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The Study of Child-Family Therapy*, 15, 17-31.
- 박정미 (2010).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Park, J.M. (2010).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yles, self-control, and self-regulated learning*.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박지영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Park, J.Y. (2010).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박혜성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Park, H.S. (2017).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mediated by self-regulated learning*.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오연경, 임정하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9(3), 1-14.
- Oe, Y.K. Lim, J.H.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 hope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3), 1-14.
- 이미정, 도현심, 지연경(2011).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2(5), 67-84.
- Lee, M.J. & Doh, H.S. & Chee, Y.K. (2011). The effects of paternal and maternal control on self-esteem in school-age boys and girls: The Mediating Role of Autonomy, *Korean J. of Child Stud.* 32(5), 67-84.
- 장인실, 이성규 (2009).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이 학습부진학생의 자기주도적학습 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22(4), 327-349.
- Chang, I.S, Lee, S.K. (2007).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program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4), 327-349.
- 이종희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Lee, J.H. (2012).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장계림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Jang, K.R. (2010).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learning commitment through self-determinism*.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정연숙 (2015). 초등 수학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에 작용하는 의지통제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Jung, Y.S. (201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of volition control working on self-regulated learning in elementary mathematics*. Doctorate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정윤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Jung, Y.H. (2016).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cademic retard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정택용 (2011) 부모의 권위주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Jung, T.Y. (2011). *Effects of authoritarian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youth*.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최진승, 박경옥, 박금옥(1998). 의지통제방략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6, 63-85.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Choi, J.S. & Park, K.O. & Park, G.O. (1998).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volitional control strategies scale on korean students, *Research Review* 26, 63-85.
- 황구연 (2010). 구조화된 자기조절 학습전략이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중소도시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Hwang, K.Y. (2010). *The influence of structure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self-directed learning*

-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ed on the second grade students of middle school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홍세림 (2017). 부모의 부정적양육방식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 2005년부터 2016년 3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Hong, S.R. (2017). *The influence of nagative child-rearing behaviors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 a meta-analysis on Korea Journal Papers published since 2005.* Master's Thesis, Hanmyang University.
- Ach, N. (2006). *On Volition*, Leipzig: Quelle & Mayer Publishing Company, Leipzig.
- Ba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n 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o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an. R. A., Baber. B. K., &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 1135-1136.
- Corno, L. (1986). The metacognitive control compon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1, 333-346.
- Corno, L. (1989). *Self-regulated learning : A volitional analysis.* In B. J.
- Corno, L., & Kanfer, R. (1993). *The role of volition in learning and performance.*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9, 301 - 41.
- Heckhausen, H. (1991). *Motivation and action.* New York, NY: Springer-Verlag.
- Kuhl, J. (1985). Volitional mediators of cognition-behaviour consistency: Self-regulatory processes and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In J. Kuhl & J. Beckmann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ur*, 101-128. New York: Springer.
- Kuhl, J. & Kazen-Saad, M. (1989). Volition and self-regulation: Memory mechanisms mediating the maintenance of intentions. In W. A. Hershberger (ED.). *Volitional action : conation and control* (pp.387-407).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on Psychology*, 29, 552-557.
- Zimmerman & D. H. Schunk (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111-142). New York: Springer-Verlag.
- Zimmerman, B. J. (1989). *Models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B. J.

<부록1>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검사지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그 렇다	대체로그 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 옆에서 놀고 있어도 계속해서 공부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수학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자신을 위로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수학공부하기 싫을 때 대학생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모둠별로 수학과제를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학교에서 주위가 소란해도 수학공부에 집중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수학공부를 하면서 불안할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7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을 때 다른 친구의 놀림을 생각하고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수학문제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주위 사람에게 물어본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수학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수학공부에 실패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수학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수학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을 때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수학시험 기간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 공부한다.	④	③	②	①
15	나는 평소에 수학시험에 대하여 불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④	③	②	①
16	나는 수학공부에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④	③	②	①
17	나는 수학과제를 해결할 때 도움자료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	④	③	②	①
18	나는 수학공부 시간이 길어도 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한다.	④	③	②	①
19	나는 수학시험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으려 한다.	④	③	②	①
20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을 때 부모님의 실망하실 얼굴을 떠올린다.	④	③	②	①
21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공부 분위기가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을 찾아서 한다.	④	③	②	①
22	나는 수학시험 기간 중에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참고 공부한다.	④	③	②	①
23	나는 수학시험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시험 끝난 뒤의 보람을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그 렇다	대체로그 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어도 장차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 한다.	④	③	②	①
25	나는 수학공부를 하기에 효과적인 장소를 미리 정해둔다.	④	③	②	①
26	나는 한 번 시작한 수학공부는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낸다.	④	③	②	①
27	나는 수학공부를 시작할 때 결심을 단단히 하고 시작한다.	④	③	②	①
28	나는 수학시험 결과가 좋다면 나의 노력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29	나는 수학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한다.	④	③	②	①
30	나는 수학시험을 망쳐서 기분 나쁠 때 다른 일을 해서 잊으려고 한다.	④	③	②	①
31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 옆에 앉으려 한다.	④	③	②	①
32	나는 수학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33	나는 수학공부나 시험으로 인해 안 좋은 기분이 들면 떨쳐버리려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34	나는 수학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침착하게 하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④	③	②	①
35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알아둔다.	④	③	②	①
36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본다.	④	③	②	①
37	나는 수학공부를 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38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④	③	②	①
39	나는 힘든 수학과제를 할 때 잘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격려한다.	④	③	②	①
40	나는 모둠별 수학활동을 할 때 수학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한다.	④	③	②	①
41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공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	④	③	②	①
42	나는 내 수학성적에 대해 주위 사람이 걱정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43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을 때 노력해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④	③	②	①
44	나는 수학자료가 필요할 때 친구의 도움을 구한다.	④	③	②	①
45	나는 수학시험을 잘못 봐도 노력하면 된다며 자신을 격려한다.	④	③	②	①
46	나는 효과적인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 친구에게 물어 본다.	④	③	②	①
47	나는 수학과제 해결 계획이 수립되면 즉각 실행으로 옮긴다.	④	③	②	①
48	나는 수학과제 해결 방법을 잘 모를 때 친구에게 물어 본다.	④	③	②	①

<부록2>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검사지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그 렇다	대체로그 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④	③	②	①
2	나의 아버지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잘라버리신다.	④	③	②	①
3	나의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신다.	④	③	②	①
4	나의 아버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④	③	②	①
5	나의 아버지는 어떤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하려고 하신다.	④	③	②	①
6	나의 아버지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④	③	②	①
7	나의 아버지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④	③	②	①
8	나의 아버지는 나를 혼낼 때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시 꺼내어 말씀하신다.	④	③	②	①
9	나의 아버지는 내가 가족에 대해 의리가 없다고 하시거나, 좋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④	③	②	①
10	나의 아버지는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④	③	②	①
11	나의 아버지는 내게 아버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④	③	②	①
12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④	③	②	①
13	나의 아버지는 내가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④	③	②	①
14	나의 아버지는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릴 때까지 내게 말하지 않으신다.	④	③	②	①
15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④	③	②	①
16	나의 아버지는 내게 잘해주시다가도 비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다.	④	③	②	①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그 렇다	대체로그 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어머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④	③	②	①
2	나의 어머니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잘라버리신다.	④	③	②	①
3	나의 어머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신다.	④	③	②	①
4	나의 어머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④	③	②	①
5	나의 어머니는 어떤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하려고 하신다.	④	③	②	①
6	나의 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④	③	②	①
7	나의 어머니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④	③	②	①
8	나의 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시 꺼내어 말씀하신다.	④	③	②	①
9	나의 어머니는 내가 가족에 대해 의리가 없다고 하시거나, 좋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④	③	②	①
10	나의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④	③	②	①
11	나의 어머니는 내게 어머니를 정말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④	③	②	①
12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④	③	②	①
13	나의 어머니는 내가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④	③	②	①
14	나의 어머니는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릴 때까지 내게 말하지 않으신다.	④	③	②	①
15	나의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④	③	②	①
16	나의 어머니는 내게 잘해주시다가도 비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다.	④	③	②	①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iyeon Choi

Masan Happo Elementary School

E-mail : rudqhr1212@naver.com

Ryu Hyunah[†]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 ryuha@cue.ac.k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of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has carried out a survey for 371 male and female students in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Gyeongnam.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statisticall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level of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was found to be higher in female groups than in male group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ather an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level perceived by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ir children's level of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volition control level in mathematics learn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higher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e lower the level of volition control of their children. So,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parenting attitude that respects their children's emotion and expression.

* ZDM Classification : C2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C20

* Key words :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Corresponding author